



4.19의 용광로가 식어 갈즈음, 양심적 지식인들의 물결은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전환점이 되었다.

◆ 4.19기념 지상 사진전

역사의 한 모퉁이를 붙잡고서...

탈선 민주경찰

사진·글 : 문화부

우정있는 대치



규탄! 규탄! 규탄!

역사에 순행과 역행이 투쟁공간, 굴종의 민중으로 매도되어온 우리, 이제 서슴없이 선포한다. 내가 역사의 주체임을.



민족 문화교실 개강 문인과의 수련회도 가려

민족문화 작가회의는 내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제5회 시민을 위한 민족문화교실'을 개최한다.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임현영, 정화진, 김규동 등 여러 문인들의 민족문화에 관한 강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또한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가지는 수련회를 통해 소설가 윤정모, 시인 이시영과 작품토론회도 가질 계획이다. (문의전화 313-1486)

아리랑의 '점아점아' 공연

80년 5월에 광주에서 죽어간 총각과 6.25때 폭격으로 죽은 북한 처녀를 혼례시켜 그들의 원혼 한 한을 풀어준다는 판자촌해운으로 진행되는 '점아점아' 공연은 '국악가 김명곤의 연출로 오는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예술극장 한마당에서 올릴 예정이다. (문의전화 743-1266)

세종문화회관 뒤 화려한 분수대 맞은편, 노점상 골목입구의 민예총 사무실은 노동영화 '파업전야'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로 뜨거웠다.

당국의 탄압에 이곳으로 쫓겨온 영화관계자 20여명이 그간의 철야농성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많은 상영기회 확보를 위해 바쁘게 뛰고 있다. 벽면에 붙은 각대화 상황표, 관람객을 위한 영화자료집대미에서 '파업전야'의 새로운 투쟁양상을 엿볼 수 있다.

영화모임 '장산꽃매'가 실제로 파업중이던 인천의 한옥 금숙현장을 무대로 한 이 영화는 지난 6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상영되었다. 그러나 상영 첫날부터 경찰이 상영장소에 진입,

민중및 노동운동의 탄압이라는 주장아래, 지난 11일 전담대를 필두로 대대적 검열을 강행했다. 지난 12일 연세대 상영에서만 1만 3천여명이 모이는 등 '파업전야'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진입, 필름압수현장등이 제까지의 탄압과정을 비디오테이프에 또 하나의 기록영화를 만들고 있는 이들, 오는 메이데이를

“영화는 경찰이 아닌 관객의 판단에 맡겨져야 합니다”

필름과 영사기를 압수하고, 영화관계자는 물론 관객까지 연행하는 등, 공권력에 의한 탄압을 당해야만 했다.

공운의 심의가 없었고, 소극장에서 돈을 받고 상영함으로써 현행 영화법과 공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당국이 가진 빈약한 단속 근거이다.

이에대해 '장산꽃매' 측은 '파업전야'에 대한 탄압은 사실상

맞아 또 한차례의 '파업전야' 동시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영화사측 이장길씨의 마지막말은 영화 내용만큼이나 절실하고, 용감했다.

“영화는 관객이 판단하는 것이지, 절대로 경찰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많은 이해가 이 영화를 보이기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김미영기자>



Nouveau Roman은 1950년대 전후로 전개된 새로운 소설양식이다. 전통적인 리얼리즘 소설은 주인공의 전기적 체험을 기본구조로 세계속의 인간이 겪는 전형적 사건과 체험을 형상화한다. 이에반해 누보로망은 생명력없는 사물들을 인간활동보다 우위에 두고 묘사한다. 따라서, 사물만이 유일한 현실로 묘사되며, 인간활동은 사물들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창작방법은 누보로망의 작가들이 인간의 능동성 상실을 현대사회의 본질적 문제로 생각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예이론가 골드만에 의하면, 누보로망이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른 개인주의의 소멸과 인간능력의 능동적 기능들이 사물들에게 옮겨가는 현상, 즉 '사물화'에 의해

누보로망

사물을 통한 현실의 간접 표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된 소설양식이다. 사물의 지배에 의해 행위가 억압되는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직접적인 인간적 경험의 표현가능성을 박탈하였다.

현대사회의 필연적 양상인 '사물화'의 소설적 수용은 나탈리 사르트르에게 '인물소설의 소설'로, 로브 그리에에게는 '자율적 현실의 소설'로 나타난다. 그들에 따르면 누보로망에서의 인간적인 현실추구는 이제 사물들의 성질과 구조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을 뿐이고, 궁극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필연성을 따라서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사건들 뿐이다. 이 사건들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현대미국의 특징적 요소로 발전한다.

누보로망의 작가들이 삶의 수동성만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세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혐의는 그들의 반항이 의식의 의미속에 드러나고 있다.

곽 봉 재 <대학원 석사과정·국문학>

예술의 계급성, 민중성, 당파성

흔히 예술 혹은 미란 보편적인 내용과 평가를 가능케하는 듯하면서도 또한 각 개인에게 있어 창작과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술을 무계급적이고 초역사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주관적이고 비합리주의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예술은 각 역사 발전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며 그단계의 미적 이상을 그려왔다. 이와같이 예술은 역사 발전 단계의 구체적 내용 즉 계급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 예술가의 세계관 및 세계감정은 그가 속한 계급의 계급의식에 의해 규정되고 그의 미적 이상 역시 그가 속한 계급의 미적 이상의 테두리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술은 '계급성'을 띄게된다. 예술의 계급성이란 특정계급의 사회적 의식의 표현으로서 예술이 지닌 특성을 의미한다. 결국 예술이 계급성을 띄게 되는 객관적 기초는 사회 자체가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계급사회에서 예술은 항상 계급성을 띄고 특정계급의 사회적 존재와 의식, 그들의 이해 및 욕구, 그들의 역사적 사명과 다른 계급에 대한 관계등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각 시대에 있어 모든 계급이 역사의 진보적 발전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 초기에 있어 부르주아 계급은 그 상승기에 있어서는 일정정도 사회의 진보적 이상을 대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배계급, 착취계급으로 위치를 굳혔을 때는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그들의

담시하는 민중성은 한 사회 속에서 처한 그들의 계급적 처지가 다름에 따라 각각 그 가능성에 있어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매 역사적 시기마다 민중성은 그 단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계급 즉 미래사회의 필연성을 담지한 계급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오늘날 민중성을 주도하는 계급은 오직 미래사회의 필연성을 담지한 노동자계급 뿐이다. 여러 계급들의 경우 그들의 계급성, 즉 계급적 특수이익과 민중성, 역사의 진보성 사이에는 어느정도 모순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그들의 민중성은 종종 불철저하고 동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들의 민주주의·휴머니즘적 지향성은 추상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노동자 계급의 계급성은 민중성과 수미일관하게 일치한다. 왜냐하면 역사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조응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계급이익은 전(全)민중들의 보편적 이익, 즉 그들의 진정한 해방을 전제하고 또 그것과 수미일관하게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성 특히 그 최고의 표현으로서의 당파성을 역사적으로 민중성의 가장 철저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의식과 투쟁이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머무는 한 이와같은 일치는 한낱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다. 민중성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성의 일치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당파성이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은 그 계급의 보편적 이해에 기반한 과학적 사회주

◇ 미학입문을 위한 시리즈 (4)

존재와 의식의 관계 표현

예술적 진리에 도달하는 미적가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예술에 있어서도 허위와 위선을 유포시켰다. 이와같이 역사의 진보성을 상실해 가는 계급은 그들의 계급적 이해가 전(全)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함으로써 자연히 예술에 있어서도 반동적 견해를 내놓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의 진보적 발전은 사회의 물질적·정신적 부의 생산자이며 역사의 진정한 주인을 담당하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민중에 의해서 대변되어 왔다. 이와같은 인민대중의 존재와 의식에 대한 예술의 관계를 표현하는 미학의 범주가 예술의 민중성 혹은 민중연대성이다. 민중에 대한 착취에 기반한 계급사회에서 민중을 이루는 각 계급들은 기생적인 착취계급에 대항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근로하는 계급, 착취당하는 계급으로서의 이와 같은 공통성, 존재의 유사성은 이들 모두를 착취계급과 충돌하게 만들고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몰아 넣는다. 예술의 민중성이란 바로 예술 속에 반영된 이러한 민중들의 역사적 진보성, 휴머니즘적 지향성을 의미한다. 한편 예술의 민중성을 종종 이해가능성, 대중성, 예술작품의 실제적 수용가능성 등으로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민중성의 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을 뿐, 예술 속에 반영된 민중들의 역사적 진보성과 이를 토대로한 예술적 진리성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민중은 다양한 계급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계급들이

의와 목적의식적으로 공공연하게 결합함으로써 자연발생성을 극복하게 된다. 이와같이 공공연하고 수미일관하게 과학적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이를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결합시키는 원리가 '당파성'이다.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토대로 한 이데올로기에 서는 달리 '계급주관주의'의 계기를 더 이상 포함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목표는 역사의 객관적 발전과 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파성과 객관성의 일치로 표현되는 노동자계급의 인식론적 무제약성은 사회주의의 현실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정형'의 견고함을 보장해준다. 또한 예술적 반영과정을 인식의 측면과 가치평가 측면에서 본다면 당파성은 이들을 통일시키는 미적 범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적범주로서의 당파성은 소재 및 주제의 선택, 구성, 내용과 형식의 통일, 갈등의 형상화에 이르기까지 예술작품의 전부분에 침투하여 이를 규정한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예술은 단지 추상적인 보편적 이념이나 무당파적인 주관적 이해를 그 내용으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미적 가치평가를 통해 예술적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정 한 진

<서울대 대학원 석사·미학>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업부문

- 프라스틱 1사업부: 하이사지, UBR, SMC, 볼텍스,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 프라스틱 2사업부: 모노로, 렉스통, 노브론, 카펫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 생활용품사업부: 수퍼마인, 하모니, 페리오치약, 차명상부, 알로에비누, 풍봉 등
- 화장품사업부: 아르도프, 미네르바, 에상스, 헤레다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 정밀화학사업부: 분산염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 의약품사업부: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성부문

- 화성 1사업부: PVC 스트레이트 레진, 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 화성 2사업부: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 화성 3사업부: ABS 레진, SAN 레진, PS 레진, EPS 레진 등
-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 폴리메틸렌사업부: 천형제일도 폴리메틸렌, 초저밀도 폴리메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 *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 *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 * Lucky Dow Chemical Ltd. (EPOXY)
- * Lucky D. C. Silicone Co., Ltd.
- * Lucky Hoechst Corp. (HDPE)
- *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 *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 *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 *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